

신약성서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

김홍석*

1. 여는 말

그리스어 단어 ὑπόστασις는 기독교 교리사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위의 개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초대 교회의 교리적 논쟁 이전에, 이미 신약과 구약성서 안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섯 번,¹⁾ 그리고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서에는 이 보다 많은 스물두 번이 사용되었다.²⁾

성경 안에서 용례들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나타난 ὑπόστασις의 개념사를 일목요연하게 조망하는 연구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보편적 타당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각 문서들의 기록 연대에 대한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던 시기를 주전 1세기 혹은 2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시기는 ὑπόστασις 개념을 통해 고대 그리스 철학 안에서 존재론적인 의미가 구체화되던 시기와 겹쳐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 그들 학파의

* Universität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객원 교수. gansa09@hotmail.com.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06932).

1) 고후 9:4; 11:17; 히 1:3; 3:14; 11:1.

2) 여기는 그리스어 외경인 Wis 16:21과 Pss 15:5 그리고 17:24가 포함되어 있다.

존재론적 구상들을 논증했다. 이러한 생각들 안에서 신약성서 저자들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보편적인 그리스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많은 경우 비슷한 시기에 번역된 그리스어 구약성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ὑπόστασις* 개념이 고대 그리스의 비철학적 문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 이 철학 밖에 있던 용례가 철학적 문헌들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사를 당시 *ὑπόστασις*를 자신들의 존재론을 위한 주요 개념 중 하나로 사용했던 중기 스토아학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나온 개념을 바탕으로 신약성서 안에 사용된 *ὑπόστασις*의 통일성 있는 해석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저자가 이 단어를 통해 나타내려고 한 신학적 의도를 규정해 볼 것이다.

2. 그리스 문헌들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간략한 개념사 (Begriffsgeschichte)

그리스 문헌들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개념은 긴 역사적 과정과 함께 그리고 다양한 학파들 안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사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존재론적인 의미 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록된 철학적 문헌들 외에 비철학적인 문헌들 안에서도 *ὑπόστασις*의 용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비철학적 문헌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철학적 문헌들 안에서 생겨난 개념이 철학적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1. 철학 외의 문헌들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

ὑπόστασις 개념은 철학적인 의미 안에서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고대 그리스의 의학적인 혹은 자연과학적인 문헌들 안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적인 문서들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혼합물의 구성 성분이나 액체의 침전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³⁾

3) 소변의 침전물 (Hippokrates, *Aph.* IV 79; Galenus, *De sanitate tuenda* IV 4,40. 6,20; Galenus, *De natura hominis* 158 참조), 우유의 침전물 (Hippokrates, *Mul.* III). 비의학적인 문서들이긴 하지만, 와인의 침전물(Theophrastus, *De causis plantarum* IV 7,4; Polybius, 34, 9, 10f. 참조)로 사용된 곳도 발견될 수 있다.

자연과학적인 문헌들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상학적 자료들이 대표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수량이나 구름의 양 혹은 눈이 녹고 난 후의 잔재물들을 나타낼 때, ὑπόστασις를 사용했다.⁴⁾ 고대 그리스의 자연과학적 혹은 의학적 문헌들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ὑπόστασις가 어떤 형태의 변형 혹은 움직임이나 농축과 같은 양적인 변형과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물질의 형태가 변형되었거나 양상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물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ὑπόστασις가 사용되었다. 또한 형태의 변형과 양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질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비철학적인 자연과학적 혹은 의학적 문헌들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개념은 한 물질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감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양상으로 존재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적 혹은 의학적 용례들 안에서 추상할 수 있는 ὑπόστασις의 개념은,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존재론적 진술들 안에서 개념과 의미의 형성을 위한 토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어지는 연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2. 철학적 문헌들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

자연과학적 혹은 의학적 문헌들 안에서 형성된 ὑπόστασις의 용례는 철학적 문헌들 안에서 형이상학적 혹은 사변적 형태로 수용되었다. 자연과학적 혹은 의학적 용례로부터 철학적 사변 안으로 넘어오는 과정과 함께 ὑπόστασις는 대략 두 가지의 의미로 분화되어 규정될 수 있다: 하나는 본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지속적) 존속’(Bestand)이라는 의미로, 다른 하나는 인식 가능한 양상으로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재’(Realität)라는 의미로 나타난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분과들 중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이 두 개념들을 가장 조화롭게 사용한 학파로 포세이도니오스(Posidonios, 주전 135-151 추정)를 중심으로 한 중기 스토아학파를 들 수 있다.⁵⁾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론을 특유

4) Aristoteles, *Meteor.* II, 1 p 353b 23ff.

5) 중기 이후의 플라톤학파(신플라톤학파의 경우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질 수 있다)나 아리스토텔레스학파도 ὑπόστασις를 자신들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용례 안에서 용어로 사용했다(H. Köster, “ὑπόστασις”, G. Kittel, G. Friedrich, hrsg.,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d. 8], [Stuttgart; Berlin; Koeln: Kohlhammer, 1969], 574-576 참조). 이런 다른 학파의 용례나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 문헌들을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너무 부족하다. 때문에 중기 스토아들로 제한해서 개념사를 요약해 보려고 한다. 중기 스토아들,

의 일원론적 세계관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 *ὑπόστασις*를 서로 상반된 본질을 가진 두 대상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정리하며 발전시켰다. ‘포세이도니오스에게 *ὑπόστασις* 개념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개념의 근원을 동일한 학파의 크리시포스(chrysippus, 주전 279-206 추정)로 보기보다는, 이전의 서로 다른 학파들의 사상들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ὑπόστασις*의 두 가지 개념 중 ‘존속’이라는 의미로의 사용을 피타고라스학파로부터, 그리고 ‘실재’라는 의미로의 사용을 에피쿠로스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⁶⁾ 왜냐하면, 크리시포스가 명사 *ὑπόστασις*를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여전히 동사 *ὑφίσταμαι*의 용례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⁷⁾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존속’과 ‘실재’라는 두 의미가 포세이도니오스에 이르러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2.1. ‘존속’으로서의 *ὑπόστασις*

*ὑπόστασις*의 두 의미 중 첫 번째 의미, 즉 ‘지속적인 존속’(Bestand)은 피타고라스학파의 언급 안에서 발견된다. 기록 연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아마도 기원전 2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오셀루스(Ocellus, 이 사람 자체는 기원전 5세기 이전의 인물로 추정)라는 이름 아래 기록된 피타고라스의 위작 문서 안에서 명사 *ὑπόστασις*가 사용되었는데, 이곳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생성의 원인, 즉 존재의 토대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 αἰτία δὲ γενέσεως ὅπου ταυτότης καὶ ὑπόστασις τοῦ ὑποκειμένου, φανερόν (...)⁸)

(생성의 원인은 토대의 동일과 존속이 지배적인 곳에서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위의 피타고라스학파의 언급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아래에 깔려 있는 어떤

특히 포세이도니오스를 중심으로 개념사를 요약한 이유는 우선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고, *ὑπόστασις*가 개념사 안에서 가장 뚜렷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6) J. Hammerstaedt, “Das Aufkommen der philosophischen Hypostasisbedeutung”, C. Hornung, S. de Blaauw, W. Löhr and S. Schmidt-Hofner, eds., *JbAC* 35 (Aschendorff Verlag: Münster: 1992), 1-11, 여기는 7-11.

7) H. Köster, “ὑπόστασις”, 574.

8) O. Lucanus, *De universi natura* 18 II,1.

본질적인 대상이 ‘남겨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본질적인 특성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어떤 독립적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자연과학적 혹은 의학적 문헌 안에서 도출된 ὑπόστασις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피타고라스학파는 ‘존속’으로서의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일치 혹은 동일을 의미하는 ταυτότης와 등위 접속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ὑπόστασις는 동일성 자체와는 구분되는 혹은 동일성보다 더 많은 어떤 특성을 의미하게 된다. 뒤리(H. Dörrie)의 견해에 의하면, 여기서 ὑπόστασις는 이미 물리적인 실현 혹은 현실화(Realisierung)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본다.⁹⁾

2.2.2. ‘실재’로서의 ὑπόστασις

피타고라스학파에서 ὑπόστασις를 ‘존속’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음이 확인되었다면, ‘실재’라는 개념으로의 사용은 에피쿠로스학파의 문헌에서 발견될 수 있다. 에피쿠로스학파의 데메트리우스 라코(Demetrius Laco)는 기원전 2세기의 인물로 추정되는데, 신과 사람의 접촉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과정에서 ὑπόστασις 단어를 사용하였다:

φανερὸν ὡς καὶ τὸν θεὸν ἀνθρωπόμορφον χρῆ καταλειπεῖν, ἵνα καὶ σὺν λογισμῷ τὴν ὑπόστασιν ἔχη. (Pherc. 1055 col. 14,3-8)

(또한 사람들이 신을 사람의 형상 안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가 그의 실존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ὑπόστασις는 ‘실존’이라고 번역됨으로 일차적으로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묘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과 사람의 접촉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전체 문장의 맥락 안에서 ‘실재’라는 표현은 일차적으로 존재 자체를 향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두 존재의 연결 방식, 즉 상호 관계성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그의 별들에 대한 묘사 안에서도 ὑπόστασις가 사용되었는데, 천문학적 현상들의 실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περὶ τε γὰρ γενέσεως [τῶν] [ἄσ]τερων καὶ περὶ ἐπίστολῆς καὶ κρύψεως ὑποστά[σεως] κεινήσεως (Pherc. 831 col. 10,3-11)

(별들의 탄생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뜨고 지는 것의 실재에 대하여)

9) H. Dörrie, ‘Υπόστασις (Hypostasis): Wort- und Bedeutungsgeschichte, NAWG 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5), 62 (각주 6 참조).

이 표현 안에서도 *ὑπόστασις*는 표면적으로 별이 뜨고 지는 것의 실재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그 실재성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별들의 실제 나타남의 방식을 향하고 있음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존재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ὑπόστασις*는 그 존재의 나타나는 방식까지를 함축하고 있다.¹⁰⁾

위의 문장들에서 사용된 *ὑπόστασις*의 용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타고라스학파에게서 *ὑπόστασις*를 통하여 표현된 ‘실재’라는 존재 방식은 ‘실현’이라는 현상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학파의 *ὑπόστασις* 개념은 존재 자체를 포함한 존재의 재현 혹은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2.2.3. 포세이도니오스(Poseidonios)에게서 두 개념의 조화

서로 다른 철학적 분파 안에서 ‘존속’과 ‘실재’ 혹은 ‘실현’으로 용례가 나누어져 유래된 *ὑπόστασις*는 중기 스토아 철학자들 안에서 융합의 과정을 겪는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앞서 말한 포세이도니오스이다. *ὑπόστασις* 개념이 중기 스토아학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스토아 철학의 일원론적인 특성 때문이다. 스토아학파의 존재론은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일원론적으로 허상이나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한다. 스토아 철학은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이 실제로 대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해서 되리는 중기 스토아학파의 *ὑπόστασις*에 세가지 특성이 전제된다고 정리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구성, 개체의 실재와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οὐσία* 개념과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그것이다.¹¹⁾

이러한 전제 아래 포세이도니오스는 몇몇 그리스어 단어들과 대립 개념으로 이루어진 비교를 통해서 *ὑπόστασις*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우선은 실재는 *ἔμφασις*(반사)와는 다른 것이다. 포세이도니오스는 태양 외의 것들은 반사(*ἔμφασις*)이지, 실재(*ὑπόστασις*)가 아니라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반사된 것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했다. 따라서 실재 없이 나타나기만 하는 현상은 참된 실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Ἄριστοτέλης δὲ τὰ παρήλιά φησιν ἔμφασιν εἶναι μὴ ἔχοντα ὑπόστασιν.
(Theiler, *Poseidonios. Die Fragmente*, Fragment 314).¹²⁾

10) J. Hammerstaedt, “Das Aufkommen der philosophischen Hypostasisbedeutung”, 8 (각주 10).

11) H. Dörrie, *ὑπόστασις(Hypostasis): Wort- und Bedeutungsgeschichte*, 50.

12) W. Theiler, hg., *Poseidonios. Die Fragmente*, O. Gigon u.a., *Texte und Kommentare. Eine*

다음으로 그는 ὑπόστασις를 ἐπίνοια 혹은 ἔννοια(생각, 사상, 개념)과 구분했다.¹³⁾ 포세이도니오스는 실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개념적인 것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수용한 플라톤 철학을 비판하면서, 개념은 실재와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ταύτην δὲ Ποσειδώνιος ἐν ἑ περὶ μετεώρων καὶ κατ' ἐπίνοιαν καὶ καθ' ὑπόστασιν ἀπολείπει (W. Theiler, *Poseidonios. Die Fragmente*, Fragment 311).¹⁴⁾

또한 포세이도니오스는 실재 안에서 구체화된 본질과 물질은 단지 생각 안에서만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διαφέρειν δὲ τὴν οὐσίαν τῆς ὕλης τὴν οὐσαν κατὰ τὴν ὑπόστασιν τῆς ἐπινοίας μόνον (W. Theiler, *Poseidonios. Die Fragmente*, Fragment 267).

위의 표현들 안에서 포세이도니오스는 사변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 안에 역설적으로 단지 사변적인 것은 실재 안에 존재하는 것과 구분될 수 있다. 바로 이 문장 안에 이어지는 마지막 대립 명제, 즉 οὐσία와 ὑπόστασις 사이의 구분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포세이도니오스에게서 ὑπόστασις는 οὐσία와 구분되는데, 실제로 이 두 개념은 구분됨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οὐσία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전혀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οὐσία는 육적이지도 물질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실재성을 가질 수가 없다. οὐσία가 실재할 수 없다면, 스토아 철학의 일원론적 세계관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에 ὑπόστασις는 현존 안으로 내재한다는 실재성을 가진다. 때문에 포세이도니오스에게 본질의 실재와 질의 실재는 이원론적인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라, 실재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된다:

ἐπὶ δὲ τῶν ἰδίως ποιῶν φασι δύο εἶναι τὰ ἐκτικὰ ὅρια, τὸ μὲν τι κατὰ τὴν τῆς οὐσίας ὑπόστασιν, τὸ δὲ [τι] κατὰ τὴν τοῦ ποιοῦ (W. Theiler, *Poseidonios. Die Fragmente*, Fragment 268).

Altertumswissenschaftliche Reihe (Bd. 10,1 u. 2) (Berlin/Boston: De Gruyter, 1982), 335 참조.

13) Ibid., 267 참조.

14) 이는 포세이도니오스에 의해 기상학적 현상들 안에 수용되었다. 생각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실재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ὕποστασις를 통해 οὐσία의 무제한자가 제한자와 연결될 수 없다는 모순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길과 스토아 철학이 본질적으로 지닌 모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퀴스터(H. Köster)는 οὐσία와 ὑπόστασις 사이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렇게 정리한다:

Während οὐσία das seinem Charakter nach unendliche Sein (=Urmaterie) als solches ist, handelt es sich bei ihrer ὑπόστασις um das ins Dasein getretene Sein, d.h. also ὑπόστασις ist das reale, in der Wirklichkeit des Daseins manifestierte Sein, wie es in den Einzeldingen vorhanden ist.¹⁵⁾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로써 οὐσία의 특성이 야기한, 제한된 개체들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모순적 상황이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 현존하는 개체들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 초월적 실체는 그 본성을 왜곡시키지 않은 채 개체들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개체는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 초월적 실체의 본성을 공유함으로써 초월적 실체와 연결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토아 철학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구체적인 명료성과 동시에 개체 안에서의 실재성을 포괄하는, 그리고 초월적 존재와 제한적 상태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¹⁶⁾

2.3. 요약

고대 그리스 철학 안에서 발전해 온 ὑπόστασις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학적·자연과학적 용례들로부터 넘겨받은 ‘존속’과 ‘실재’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다른 근원 안에서 형성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중기 스토아학파의 포세이도니오스에 의해서 두 개념이 서로 합쳐지는 개념사적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상반된 두 개념은 일원론적인 스토아적 존재론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월적 실체의 특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가리키는 ‘존속’이라는 의미와, 개체 안에 감각 가능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실재성이라는 의미가 ὑπόστασις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월적 존재가 현 세계 안에서 인지되고 감각될 수 있는 것은 ὑπόστασις가 그 초월적 존재의 속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중기 스토아학파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현상 뒤에 숨어 있는

15) H. Köster, “ὕποστασις”, 574.

16) Ibid., 574f.

실재를 담보함으로 초월자와 제한자를 연결하는 개념이다.

3. 신약성서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약성서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총 5회 사용되었다: 바울 서신에서 두 번(고후 9:4; 11:17), 히브리서에서 세 번(히 1:3; 3:14; 11:1). 적은 용례 안에서도 통일된 의미로 번역되지 못했다. ὑπόστασις는 『개역개정』 번역에서 고린도후서 9:4에서는 ‘믿음’으로, 11:17에서는 ‘기탄 없이’라는 표현으로 의역되었다. 히브리서 3:14에서는 ‘확신한 것’이라고 바울 서신에서와 유사하게 번역되었고, 1:3에서는 ‘본체’로, 마지막으로 11:1에서는 ‘실상’이라고 번역됨으로써 존재론적·철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3의 본체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으로 가장 교리적 용례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제 고대 그리스 문헌들 안에서 발견한 ὑπόστασις의 개념사적 의미와 신약성서 안의 각 용례들 사이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3.1. 고린도후서 9:4

μή πως ἐὰν ἔλθωσιν σὺν ἐμοὶ Μακεδόνες καὶ εὐρωσιν ὑμᾶς ἀπαρσκευάστους κατασχυνθῶμεν ἡμεῖς, ἵνα μὴ λέγω ὑμεῖς, ἐν τῇ ὑποστάσει ταύτη.

만약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준비되지 못한 너희를 본다 면, 우리가 이 실상으로 인해 부끄럽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9:4 안에 있는 ὑπόστασις를 확실하게 번역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 동안의 연구사 안에서 많은 다양한 번역 제안들이 있었다. 우선, 『개역개정』은 ἐν τῇ ὑποστάσει ταύτη를 연보에 대한 준비를 원하는 바울의 기대와 연결함으로 “이 믿던 것에” 라고 번역했다. 『개역개정』과 유사한 제안으로 바레트(G. K. Barrett)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인,¹⁷⁾ ‘확신’(Zuversicht)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구체화

17) 사실 LXX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번역도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스물두 번의 용례 안에서 그나마 여러 번 ‘확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다(Ibid., 579-581 참조).

하는 방향으로 번역했다.¹⁸⁾ 실제로 이 번역을 수용한 콰스터는 ‘의도’(Vorhaben) 혹은 ‘계획’(Plan)으로 번역함으로써 『개역개정』의 제안과 유사하게 바울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자신만의 강조점으로 의역을 시도했다.¹⁹⁾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번역들이 있다. 바우어(W. Bauer)는 그의 그리스어-독일어 사전에서 ‘상황’(Lage)이라고 다소 모호한 번역을 제안했는데, 이는 기본 의미 중 하나인 ‘토대’(Grundlage)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슈멜러(T. Schmeller)도 이에 동의한다.²⁰⁾ 빈디쉬(H. Windisch)는 아주 중립적으로 대명사처럼 번역한 두 가지 의역을 제안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²¹⁾

고린도후서 9:4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연보에 대한 준비를 부탁하는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다.²²⁾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을 보냈고, 그 보낸 이유를 3절에서 5절 안에 밝히고 있다. 여기서 총 네 번의 목적 문장(Final-Satz)들이 사용되었다. 3절에는 두 개의 ἵνα절을 통하여 이 형제들을 보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ἵνα μὴ τὸ καύχημα ἡμῶν τὸ ὑπὲρ ὑμῶν κενωθῆ ἔν τῷ μέρει τούτῳ),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ἵνα καθὼς ἔλεγον παρεσκευασμένοι ᾦτε). 5절에서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형제들이 미리 가서 너희가 약속했던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ἵνα προέλθωσιν εἰς ὑμᾶς καὶ προκαταρτίσωσιν τὴν προεπηγγελμένην εὐλογίαν ὑμῶν)라는 문장을 통해, 형제들이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이에 기록된 4절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서신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이 서신을 쓰기 얼마 전에 마케도냐 사람들을 위해 연보를 작성했고, 이를 바울은 이미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약속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자랑이 헛된 것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18) G. K. 바레트, 『고린도후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297-298.

19) H. Köster, “ὑπόστασις”, 582-583.

20) W. 바우어, 『바우어 헬라어 사전: 신약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헌의 헬라어-한국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7), 1571 참조; T. Schmelle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EKK VIII/2) (Neul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15), 69 (84도 참조).

21) H. Windisch, *Der zweite Korintherbrief* (MeyerK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4), 273.

22) 잘 알려진 것처럼, 이 단락은 독립적인 편지가 합쳐진 것인지, 아니면 재차 강조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도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단락의 맥락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만 제한할 것이다.

마게도냐 사람들과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급하게 준비한다면, 이 연보는 억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단락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본문의 맥락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지점이 전제된다.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다.²³⁾ 사실상 그동안 연구자들의 ὑπόστασις에 대한 다양한 번역들이 이러한 각각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지점에 대한 상황적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두 본질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의미를 가진 ὑπόστασις가 본문 안에서 바울의 기대 혹은 염려와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두 지점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본문의 ὑπόστασις 안에 있는 바로 이 두 지점 중에 어느 곳에 중점이 찍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믿던 것’ 혹은 ‘확신’ 혹은 ‘기대’나 ‘계획’과 같은 번역은 고린도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대로 ‘상황’이나 ‘토대’ 등의 번역은 고린도 교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를 고려한 것이다. 4절에서 바울이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ὑπόστασις에 부끄럽게 될까 염려하는 것은 이 두 입장이 조화되지 않고, 바울의 기대와 바람이 충족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과 관련된다. ὑπόστασις가 2-3절의 자랑과 관련되면, 수동적으로 바울의 기대와 자랑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되고, 이 당하는 대상인 ὑπόστασις는 바울의 기대와 자랑이 될 것이다. 반대로 ὑπόστασις가 준비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과 관련되면, ὑπόστασις는 능동적으로 바울을 부끄럽게 만드는 주체가 된다. 본문의 ὑπόστασις 안에서 이 두 지점이 정확하게 겹쳐진다. 부끄럽게 될 대상으로도, 부끄럽게 만들 실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ὑπόστασις가 가진 ‘실재’라는 의미를 최대한 손상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바울이 염려하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해석으로 본문의 ἐν τῇ ὑποστάσει ταύτη를 ‘이 실상에’ 혹은 ‘이 실상으로 인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다만,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23) 이러한 양상은 ὑπόστασις 연구사 안에서도 나타나는데, 위의 개념사 안에서는 ‘본질’과 관련된 ὑπόστασις의 용례를 소위 초월자로부터 개체들 안으로 내재하는 방향으로 이해한 반면에, 소요학파(Peripatus)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학파는 개체들 안에 있는 ὑπόστασις를 주장한다. 그래서 본질이 다른 학파들에게서 당연시되는 초월자로부터 개체로 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반대로 개체들로부터 초월자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을 주장한다(H. Köster, “ὑπόστασις”, 575 참조).

하기 위해, ‘이 실상을 보고’라고 의역하는 것도 함께 제안한다. 이를 통해 바울이 갖고 있던 기대와 ὑπόστασις를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제’가 감각 가능한 영역 안에서 나타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ὑπόστασις의 용례와 더욱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바울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고린도 교회의 ‘실제 모습’, 즉 ‘실상’이다.

3.2. 고린도후서 11:17

ὁ λαλῶ, οὐ κατὰ κύριον λαλῶ ἀλλ' ὡς ἐν ἀφροσύνῃ, ἐν ταύτῃ τῇ ὑποστάσει τῆς καυχίσεως.

나는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 안에 있는 사람처럼 자랑의 이 실제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²⁴⁾

고린도후서 11:17에 기록된 ὑπόστασις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러 의미로 다양한 번역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개역개정』은 ἐν ταύτῃ τῇ ὑποστάσει 표현을 “기탄 없이”라고 자랑하는 바울의 태도를 중점으로 의역했다. 바레트와 린츠만(H. Lietzmann)은 9:4과 동일하게 ‘확신’(Zuversicht)이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쓰미엥스키(J. Zmijefski)는 ‘의도’(Vorhaben)로 번역했는데, 이와 유사한 해석으로 ‘계획’이나 ‘제안’ 등의 번역을 고려한 해석가들이 있다.²⁵⁾ 이보다 좀 더 의역한 경우들로, 볼프(C. Wolff)의 ‘대상’(Gegenstand), 볼트만(R. Bultmann)의 ‘주제’(Thema), 베커(J. Becker)의 ‘상태’(Zustand), 보쉬(S. Bosch)의 ‘상황’(Situation)을 들 수 있다.²⁶⁾

이런 다양한 번역의 예들 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반대로 해석한 학자들이다. 퀴스터는 ‘의도’(Vorhaben)로 번역했는데, 그는 여기서 사용된 ὑπόστασις가 거의 실제(Wirklichkeit)와 반대말로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Es ist deutlich, dass ὑπόστασις in solchem Zusammenhang nahezu das Gegenteil von Wirklichkeit bezeichnet”.²⁷⁾ 이와 반대로 슈멜러는 일차적으로 전치사 구문 ἐν ταύτῃ τῇ ὑποστάσει를 “in dieser Ausprägung”(이 표현 안에서)라고 번역하면서,²⁸⁾ 자랑의 실행(Verwirklichung)을 반드시 부

24) 가능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할 때, ἐν ταύτῃ τῇ ὑποστάσει τῆς καυχίσεως는 ‘자랑의 이 실제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보다 쉬운 의미 전달을 위해서 본문 전체는 ‘내가 말하는 것(방식)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안에 있지만, 내 자랑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5) T. Schmelle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237 (각주 32) 참조.

26) Ibid. (각주 33과 35)

27) H. Köster, “ὑπόστασις”, 583.

28) T. Schmelle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233.

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²⁹⁾ 이 표현이라는 의미 안에는 속성과 그 속성의 드러남이라는 구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개념사 안에서 발견한 ὑπόστασις가 가진 두 본질 사이에서 작용하는 매개적 역할과 관련될 수 있다.³⁰⁾ 이 매개적 역할 안에 있는 개념은 실제성의 존속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과 자랑하는 태도 사이의 간극이다. 자랑하는 모습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태도를 모방하여 말하는 것이다. 앞선 단락인 11:1-5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극히 크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자랑하는 자들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분별 없이 어느 정도 수용했다.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자랑이다. 이 자랑은 거짓이고, 허구이다. 이를 본문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ὡς ἐν ἀφροσύνη)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도 말하기 방식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하기 방식을 따라 자랑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리석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 진실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문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이런 태도와는 다른, 자랑의 참된 내용과 실체를 변호하기 위한 표현이 된다. 비록 자랑이라는 형식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동일하지만, ἐν ταύτῃ τῇ ὑποστάσει τῆς καυχίσεως, 즉 그 자랑의 실체 안에는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과 구분되는 진실이 담겨 있음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ὑπόστασις가 사용된 것이다.

자랑이라는 말하기 방식과 그 자랑의 내용 사이에서 실체를 보증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ὑπόστασις가 위치하고 있다. 바울이 말했던 ‘자랑이라는 말하기 방식’을 빌려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내용은 거짓이나 허구가 아니라, 진실 즉 ‘실재’라는 것이다.

3.3. 히브리서 3:14

μέτοχοι γὰρ τοῦ Χριστοῦ γεγόναμεν, ἐάνπερ τὴν ἀρχὴν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
μέχρι τέλους βεβαίαν κατέσχωμεν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되었다. 만약 실재의 시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기만 한다면,

29) Ibid., 237.

30) 이 의미는 히 1:3에서의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서 3:14의 *ὑπόστασις*도 ‘확신’ 혹은 ‘믿음’과 같은 의미로 번역되었다. 『개역개정』도 목적격-소유격으로 연결된 *τὴν ἀρχὴν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이라고 번역함으로 전통적인 루터의 제안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헬(O. Michel)은 ‘확신’으로의 번역적 전통으로 LXX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τὴν ἀρχὴν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는 처음의 확신을 뜻하지, 확신의 단초를 가리키지 않는다.³¹⁾

그러나 이런 번역은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고전어의 특성상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격-소유격으로 구성된 문장 구조마저 완전히 변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바우어는 히브리서 3:6에 언급된 심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번역한 되리를 인용하면서, *ὑπόστασις*의 개념을 ‘상태’, ‘자세’ 혹은 ‘처지’ 라는 의미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³²⁾ 레인(W. L. Lane)도 *ἀρχὴν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를 “basic position”으로 번역하면서, 이 *ὑπόστασις* 개념은 ‘신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의무 아래 자기 자신을 두었을 때, 신자들의 기독교적인 자리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³³⁾ 쾨스터의 경우 독특한 번역을 시도한다. 우선 그는 히브리서에 사용된 용례 전체를 다룰 때 이 *ὑπόστασις*라는 개념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로 ‘견고함’(Festigkeit)이라는 자세와 연결된 의미를 제안한다. 하지만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 개념이 “실재”, 즉 “Wirklichkeit Gottes”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³⁴⁾

보다 확실한 *ὑπόστασις* 의미를 유추하기 위해서, 본문의 정확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본문은 완료형 동사가 사용된 주문장과 조건문 부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완료형 동사가 사용된 주문장의 내용이 부문장 안에 사용된 조건에 종속될 수 있느냐’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된 일, 곧 이미 완료된 이 일이, 변경될 수 있는가 하는 예민한 구원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조건문 부문장에 중심을 두는 해석가들은 본문 전후의 모티브가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건을 근거로 변화 불가능한 완료된 사실에 중점을 두기보다 취소나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완

31) O. Michel, 『히브리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262.

32) W. 바우어, 『바우어 헬라어 사전』, 1571

33) W. L. 레인, 『히브리서』 (I),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7), 342 그리고 344.

34) H. Köster, “ὑπόστασις”, 586f.

료형으로 기록된 주문장에 더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고를 통해 교회를 교훈하려는 의도로 해석한다.³⁵⁾

구조적으로 14절의 표현은 6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동일한 동사 κατάσχωμεν이 ἐάν이 여는 부문장에서 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ὑπόστασις가 포함된 구문은 다음과 같이 병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6	ἐάν[περ] τὴν παρρησίαν καὶ τὸ καύχημα τῆς ἐλπίδος	κατάσχωμεν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V.14	ἐάνπερ τὴν ἀρχὴν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 μέχρι τέλους βεβαίαν	
	실체의 시작을 끝까지 확실하게	

부수적인 전치사 구와 수식어들을 제거하면, 6절의 τὴν παρρησίαν καὶ τὸ καύχημα τῆς ἐλπίδος의 자리에 14절의 τὴν ἀρχὴν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가 위치함을 알 수 있다. 6절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는 표현 안에 이미 ὑπόστασις의 개념사 속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두 본질을 연결하는 역할이 암시되어 있다. 왜냐 하면, 미래의 현세화, 혹은 내세적인 것의 현세화와 같은 기본 구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티브가 14절의 ‘실체의 시작’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구절 안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콰스터가 ‘하나님의 실재’(Wirklichkeit Gottes)라는 초월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바이스의 경우 ‘믿음의 토대’(Glaubensgrundlage)라고 번역함으로써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와 관련된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³⁶⁾ 이 두 번역은 믿음이라는 인간적인 출발점과 하나님의 실재라는 초월적인 출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절의 표현과 같이, 14절의 표현 안에서도 서로 다른 두 지점이 전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바이스의 번역은 전통적인 번역에 나타난 것처럼 믿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임을 강조했다. 이는 본문의 정황들 안에서 콰스터가 말하는 하나님의 실재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공유 지점을 가진다. 본문이 속한 3장 전체는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의 근거로 기독교론적인 논증을 전제하고 있는데,³⁷⁾

35) H.-F. Weiss, *Der Brief an die Hebräer*. KEK (XIII), 15.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1), 261-266; 혹은 인식의 문제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다(Arnold G. Fruchtenbaum, *Der Hebräerbrief. Eine Auslegung aus messianisch-jüdischer Perspektive*, 3. Aufl. [Hünfeld: CMD, 2012], 65 참조). 더 이상의 심화된 논의는 본 소고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36) H.-F. Weiss, *Der Brief an die Hebräer*, 264-266.

37) *Ibid.*, 263 이하 참조.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동기와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론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교훈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은 하나님의 실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사실상 ‘하나님의 실재’와 ‘믿음의 토대’ 이 둘은 출발 지점이 다를 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실재’가 ‘믿음의 토대’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ὑπόστασις*는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어떤 실재이고, 믿음이 성립되게 하는 어떤 대상 혹은 사건이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믿음 자체로 표기하는 것은 *ὑπόστασις*가 가진 존재론적 의미와, 이 단어를 여기 사용한 저자의 의도를 일부만 반영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 *ὑπόστασις*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 안에 이미 전제된 인간적 특성과 초월적 특성, 이 두 서로 다른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단어 자체가 가진 존재론적 의미를 무시하고 의역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히브리서 3:14에서 *τὴν ἀρχὴν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는 ‘실재의 시작을’ 이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실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토대로 작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초월자인 하나님과 제한자인 인간 사이의 서로 다른 두 영역이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서 실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접근과 접촉이 가능하도록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저자의 용례 안에서도 *ὑπόστασις*는 ‘믿음’이나 ‘소망’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믿음’이나 ‘소망’ 자체로 번역될 수 없는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증이 가능할 것이다.

3.4. 히브리서 11:1

Ἔστιν δὲ πίστις ἐλπίζομένων ὑπόστασις, πραγμάτων ἔλεγχος οὐ βλεπομένων.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히브리서 11:1은 명사와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격 분사 혹은 구문으로 구성된 동일한 구조를 가진 두 구문이 주어 *πίστις*의 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술어부를 통해 믿음이 미래적인 것을 어떻게 현재화하는가 하는 문제와, 비가시적인 것을 어떻게 가시화하는지를 연결하고 있다. 문장의 구조를 보

38) 이어지는 ‘3.5. 히브리서 1:3’ 단락 안에서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면, 다음과 같다:

πίστις	ἐλπίζομένων	ὑπόστασις
	πραγμάτων οὐ βλεπομένων	ἔλεγχος

히브리서 11:1의 ὑπόστασις도 확실하지 않은, 여러 번역 가능성들만 주장될 뿐이다. 바우어는 여기서 전통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제안된 ‘신뢰’나 ‘확신’으로의 번역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실행’ 혹은 ‘실현’이라는 범주 안에 본문을 배치했다.³⁹⁾ 레인도 전통적인 종교 개혁자들의 번역을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 안에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주장 불가의 것으로 간주했고,⁴⁰⁾ “실제”(objective reality)로 번역했다.⁴¹⁾ 여기서 레인은 ὑπόστασις를 대상적인 의미로만 제한했는데, 이는 바이스도 동의한다. 바이스는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subjektiv) 관점과 대상적인(objektiv) 관점으로 구분하여 해석을 시도한다. 주체적인 관점은 믿음의 태도 혹은 자세에 대한 권면과 관련되어, ‘건고하게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문장들 안에서 사용되는데, 앞서 분석한 히브리서 3:14의 ὑπόστασις는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11:1에서의 ὑπόστασις는 히브리서 1:3과 함께 대상적인 관점 안에서 사용된 경우로 분류하고, 특히 1b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ἔλεγχος와 병행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⁴²⁾ 콰스터도 바이스와 유사하게, ἐλπίζομένων ὑπόστασις를 ‘희망하는 것들의 실재’로 해석했다. 그 희망하는 것들 안에는 미래적이고 피안의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 그 미래적인 피안의 특성을 가진 것이 객관화되고 대상화된다고 보았다.⁴³⁾

히브리서 11:1의 ὑπόστασις는 개념사 안에서 살펴본 특성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소망하는 것이라는 미래적이고 피안적인 대상을 현세화하고 현재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고, 피안과 현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진 두 세계가 ὑπόστασις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공존하게 된다.

39) W. 바우어, 『바우어 헬라어 사전』, 1571.

40) W. L. 레인, 『히브리서』 (II), 236.

41) Ibid., 234.

42) H.-F. Weiss, *Der Brief an die Hebräer*, 561.

43) H. Köster, “ὑπόστασις”, 584-586.

전체 문장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πίστις*를 서술하는 말이기 때문에, *πίστις* 자체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망과 관련된 구절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소망하는 것들의 *ὑπόστασις*이기 때문에, 소망 자체로 볼 수도 없다.⁴⁴⁾ 미래적 피안적 특성을 가진 것이 본질적 특성을 유지한 채, 현세에서 대상화된 ‘실재’가 *ὑπόστασις*이다. 이미 『개역개정』은 위의 논의들을 잘 수렴하여 ‘실상’으로 *ὑπόστασις*의 의미가 잘 반영된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본 단락에서는 다른 번역을 제안하기 보다는 *ὑπόστασις*가 가진 존재론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3.5. 히브리서 1:3a

ὁς ὢν ἀπαύγασμα τῆς δόξης καὶ χαρακτήρ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 αὐτοῦ
그는 그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의 실재의 드러남이다.

히브리서 1:3a에 나타난 *ὑπόστασις*의 번역은 지금까지 살펴본 용례들 가운데 가장 논쟁의 여지가 적다. 바우어는 그의 사전에서 ‘존재’, ‘실체’, ‘본체’의 범주에 본문을 정리했다.⁴⁵⁾ 콰스터도 ‘존재’(Wesen)라고 번역했고, 특히 “die Realität der jenseitigen Wirklichkeit dh Gottes”는 ‘하나님, 즉 피안의 실체의 실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⁴⁶⁾ 레인은 ‘본성’(nature)이라고 번역함으로 삼위일체적인 의미를 더 강력하게 부여했다.⁴⁷⁾

본문은 기독교론적 전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등위 접속사 *καί*로 연결된 두 개의 병행구로 이루어져 있다:

<i>ἀπαύγασμα</i>	<i>τῆς δόξης</i>	<i>αὐτοῦ</i>
<i>χαρακτήρ</i>	<i>τῆς ὑποστάσεως</i>	

이 짧은 구절 안에 사용된 단어들은 *δόξα*를 제외하고는 신약성서 안에서 흔히 사용된 단어들은 아니다. ‘빛을 발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ἀπαύγασμα*는 신약성서 안에서 이곳에만 사용되었고, 지혜서(LXX)에 한 번 사용되었을 뿐이다. ‘각인’ 혹은 ‘복사’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χαρακτήρ*도 신약성서

44) LXX 전통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를 이렇게 번역한 예들을 보게 된다. 아래 각주 48 참조.

45) W. 바우어, 『바우어 헬라어 사전』, 1571.

46) H. Köster, “ὑπόστασις”, 584.

47) W. L. 레인, 『히브리서』 (I), 230-231.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사용된 예가 없고, LXX에서 세 번의 용례가 확인되는데(Lev 13:28; 2Ma 4:10; 4Ma 15:4), ‘나타남’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의역하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체를 각인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앞서 고대 그리스 문헌들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가 ἔμφασις와 구분된 것처럼, ὑπόστασις는 단순히 ἀπαύγασμα, 즉 반사하는 것도 아니며, χαρακτήρ, 즉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자명하게 ὑπόστασις는 실재 자체와 관련된다. 또한 ὑπόστασις는 δόξα와 병행되어 동의어적 관계 안에 사용되었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적 문헌들 안에서 οὐσία와 구분되듯이, δόξα 자체와도 구분된다.

이런 관점에서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서 명확해지는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선 아들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며,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서로 다른 두 존재는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어서 하나님의 실체적인 본질이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서 아들 안에 존속됨으로 실재한다. 뿐만 아니라, οὐσία와 같이 개체와 연결되기 힘들었던 초월적 본성이 현세와 같은 감각적 세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표명될 수 있는 길이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때문에 χαρακτήρ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 αὐτοῦ를 ‘그(하나님)의 실재를 드러냄’으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한다. 히브리서 1:13에서 사용된 ὑπόστασις의 용례는 이 단어가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는 세 위격을 신학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한 용어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4. 닫는 말

신약성서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를 통일성 있게 번역하는 일은 가능한가? 고대 그리스 문헌 안에 있는 개념사적 의미에 부합하게 번역할 수 있을까? 이를 통해 교리사의 삼위일체 용어적 사용을 신약성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동안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 전통과⁴⁸⁾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에 의해, ὑπόστασις는 ‘확신’이나 ‘신뢰’, 혹은 ‘소망’으로 번역되어 왔다. 사실 이것마저도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고, 문맥 안에서 이해하기 쉬운 의역으로 대체되어 왔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48) LXX에서도 ὑπόστασις는 여러 다양한 히브리어와 연결되어 통일되지 못한 채 번역되었다. LXX에서는 πῶντῃ를 가장 많이 ὑπόστασις로 번역하였다(룻 1:12; 시 38:8; 겔 19:5). 이 전통을 종교 개혁자들이 번역을 할 때,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학의 존재론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존속’이라는 의미와 ‘실재’라는 의미로 본질상 서로 다른 두 존재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의역으로 치우친 전통적인 번역으로는 이런 개념사 안에서 파악 가능한 *ὑπόστασις*의 본래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기가 어려웠다.

그 무엇보다 뚜렷하게 모든 본문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전제한다. 바울 서신의 경우 교회의 실상과 자신의 기대(고후 9:4), 그리고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형식과 자랑 안에 담긴 거짓 없는 진실(고후 11:17)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 히브리서의 *ὑπόστασις* 용례들은 고대 철학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는데, 인간의 출발점과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초월적 출발점(히 3:14), 미래적이고 피안적인 대상과 현재적이고 현세적인 상황(히 11:1), 그리고 초월적 하나님의 실재와 각인되어 감각 세계 안에 드러나는 현상(히 1:3)이 서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바울의 경우, *ὑπόστασις*가 가진 철학적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다른 두 지점 사이의 갈등을 배경으로 ‘실상’이라는 ‘실재’로서의 의미는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더 *ὑπόστασις*가 가진 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하나님의 실재를 현세와 현재에 연결하는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가 기록된 시대 이후, 신플라톤 주의자들의 영향 안에서 형성된 삼위일체 교리를 뒷받침하는 용어의 전형(Prototyp)으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 *ὑπόστασις* 안에서 발견되는 ‘존속’과 ‘실재’라는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존재적 본성을 유지한 채, 현세의 제한된 개체들 안에서 실재함이 히브리서 저자의 용례 안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신약성서 안에서 *ὑπόστασις*는 ‘실재’ 혹은 ‘실상’으로 통일된 의미 안에서 번역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번역되어야 저자들이 *ὑπόστασις*를 사용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했던 신학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신학적 의미는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의 성서적 근거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서 성자는 성부의 본성, 즉 신성을 존속하고 있음이 확정될 뿐만 아니라, *ὑπόστασις*를 통해서 성자는 감각 가능한 세계 안에서 실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성자 안의 *ὑπόστασις*뿐만 아니라, 성령 안의 *ὑπόστασις*에 대해서 다음 단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위격, 존속, 실재, 삼위일체, 존재론.

Hypostasis, Existence, Continuance, Trinity, Ontology.

(투고 일자: 2021년 1월 29일, 심사 일자: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4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editio funditus renovata, cooperantibus H. P. Rüger et J. Ziegler ediderunt K. Elliger et E. Rudolph, Stuttgart 1967/1977.
- Novum Testamentum Graece, post E. Et E. Nestle communitier ediderunt B. et K. Aland, J. Karavidopoulos, C. M. Martini, B. M. Metzger, 27. rev. Aufl. Stuttgart, 1993.
-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ed. A. Rahlfs, vol. I-II, Stuttgart, 1935.
- 레인, W. L., 『히브리서』 (I-II),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7.
- 미헬, O., 『히브리서』, 강원돈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바레트, G. K., 『고린도후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바우어, W., 『바우어 헬라어 사전: 신약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헌의 헬라어-한국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7.
- Dörrie, H., ‘Υπόστασις (Hypostasis): Wort- und Bedeutungsgeschichte, NAWG 3,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55, 35-92.
- Fruchtenbaum, A. G., *Der Hebräerbrief. Eine Auslegung aus messianisch-jüdischer Perspektive*, 3. Aufl., Hünfeld: CMD, 2012.
- Galenus, *De sanitate tuenda*, Konrad Koch, hg., Corpus Medicorum Graecorum (Bd. V 4,2), Lipsiae (u.a.), 1913.
- Hammerstaedt, J., “Das Aufkommen der philosophischen Hypostasisbedeutung”, C. Hornung, S. de Blaauw, W. Löhr und S. Schmidt-Hofner, eds., *JbAC* 35, Aschendorff Verlag: Münster, 1992, 1-11.
- Harder, R., *Ocellus Lucanus Text und Kommentar*, W. Jaeger, hg., Neue Philologische Untersuchungen (1. Heft), Berlin: Weidmann, 1926.
- Heiberg, I. L., hg., *Hippocrates Opera, Corpus Medicorum Graecorum* II, Lipsiae, 1927.
- Hippocrates, *Oeuvres complètes d'Hippocrate*, Bd. I-X, Paris, 1839-1861.
- Köster, H., “ὑπόστασις”, G. Kittel, G. Friedrich, hrsg.,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d. 8), Stuttgart; Berlin; Koeln: Kohlhammer, 1969, 571-588.
- Schmeller, T.,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EKK V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15.
- Theiler, W., hg., *Poseidonios. Die Fragmente*, O. Gigon u.a., Texte und Kommentare. Eine Altertumswissenschaftliche Reihe (Bd. 10,1 u. 2), Berlin/Boston: De Gruyter, 1982.
- Weiss, H.-F., *Der Brief an die Hebräer*, KEK (XIII), 15.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1.

Windisch, H., *Der zweite Korintherbrief* (MeyerK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4.

<Abstract>

The Meaning of ὑπόστασις in the New Testament

Hong Seok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ὑπόστασις has been employed as a term for a person in the doctrine of the Trinity. Therefore, it is a word that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However, in the Bible, this word may be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erms to translate. In the New Testament, this word hasn't been translated identically, despite its a few examples. Religious reformers have translated this word as trust and confidence, reflecting their theological perspectives.

For an accurate and consistent translation of ὑπόστασις, we need to take a look at the conceptual history of ὑπόστασις in ancient Greek documents. The fundamental problem in ancient Greek ontology was that the Transcendental Being could not enter the limited individual due to its substantial nature. ὑπόστασις resolved the problem in the ontology of this ancient philosophy by enabling a connection between the Transcendental Being and the limited one while keeping the essential nature of the Transcendental Being. In ancient Greek philosophy, the reason why ὑπόστασις was able to play a role as a link between the Transcendental Being and the limited one was that the word had the meaning of continuance(Bestand) and existence(Wirklichkeit) at the same time. These two meanings are likely to have been driven initially by different schools. But the two became a unified concept when Poseidonios, one of the main figures of the Middle Stoics, combined the ideas. Thus, the ontological possibility, which means the Transcendental Being keeping its nature could exist in the limited individuals, was made possible through ὑπόστασις.

The meaning of ὑπόστασις found in conceptual history can be used for the translation of ὑπόστασις in the New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ὑπόστασις is employed five times by two authors (2 Corinthians 9:4; 11:17; Hebrews 1:3; 3:14; 11:1). However, ὑπόστασις was not translated identically in other foreign language Bibles as well as the KRV. Although sense-for-sense translation benefits the audience's understanding, the translation's purpose to carry its

original denotation should not be lost. Consequentially, contextually liberal translation poses the threat of misunderstanding of the author's intention.

Most of all, in the texts of the New Testament, it is important that ὑπόστασις was used to bridge opposing points that are difficult to reconcile contextually in the texts of the New Testament. Contrary to the author of Hebrews, Paul used ὑπόστασις to personally imply conflicts within the church whilst the author of Hebrews used ὑπόστασις within the theological scope. Paul applied ὑπόστασις to describe his situation instead of theological perspectives, while the author of Hebrews applied ὑπόστασις in the meaning of the theological subjects. The *actual* aspects of Paul himself in his situation is delicately expressed through ὑπόστασις, and Paul prepares lessons and encouragements for the status of the church through this. In Hebrews, the revelation of the *existence of God* in the present day has been portrayed through ὑπόστασις. Hebrews 1:3 has an almost perfect theological agreement with the example used by Trinitarianism, which is the final purpose of studying this word.

Therefore, the fundamental ontological meaning of *existence* should not be weakened or alienated within all these examples. The translation should be attempted within the range containing the fundamental meaning of *existence* in line with the context and authors' intent. The uniform translation of ὑπόστασις in the New Testament based on the conceptual history provides the very ground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tself and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whol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